

2면에 이어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참조

남원 임실 순창



이강래(민주, 67)
전 도로공사 사장
전 국회의원



정상모(정의, 55)
화신사이버대 부교수
당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실립 특위 위원장



이용호(무, 60)
현 국회의원
국회 국토위 위원
국회 예결위 위원



방경애(무, 63)
흥조건설 대표이사
전 20대 국회의원
후보



김종호(무, 54)
현 국회의원
전 원광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안호영(민주, 54)
현 국회의원
당 전북도당
위원장



장주원(배당, 52)
사회복지사
금쪽같은 내부모닝
데이케어 사무국장



임정엽(무, 60)
전 완주군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제 부안



이원택(민주, 50)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민(민생, 65)
바른미래 중앙당
조직위원장
당 조직강화특별위원



박정요(배당, 56)
요양보호사
전 지역업
전 교원 학습지도사



김성룡(배당, 61)
지역업
당 익산출
당협위원장

진안 군수 재선



전 춘성(민주, 59)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
전 진안읍장



김현철(무, 53)
전 전북도의원
전 진안군의원



송상모(무, 74)
진안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
전 진안부군수



이충구(무, 65)
전 전북도의원
전 민주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협력형 돌봄·교육 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박희자 도의원 발의 ‘추구 건의안’ 원안 가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개선 필요”

전북도의회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교육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의회 ‘협력형돌봄·교육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지난 20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박희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시장화 된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현장은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자,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낳았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모두가 만족하는 더 좋은 돌봄·교육서비스를 위해 ‘협력형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자는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박희자 의원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의 환경변화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면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돌봄·교육 서비스는 정부 각 부처마다 상이한 체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돌봄에 대한 교육부, 여가부, 보건부 등이 우왕좌왕하는 것에 국민들과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돌봄센터 등이 혼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면서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통합과 협력 그리고 확충으로 공공성 담보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가 역할과 분업, 협력이 어디까지인지 매년 논쟁이 되어왔지만,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를 통합과 협



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 의도가 잘 전달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자 의원은 “이에 흠여져있는 각각 정부 부처 사회서비스 제공을 한 곳으로 통합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돌봄·교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함께 이들의 서비스가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협력형 돌봄·교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기후와 심각한 질병 그리고, 환경 변화 위기로 인해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놓였다”면서 “먼저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들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킷오프 회의

전북도는 지난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0년 새만금 전문가 워킹그룹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올해 새만금 조성 ▲정책·기획, 산업·투자, 관광개발, 수질·환경 등 4개 분야 위원을 위촉하고, ▲새만금사업 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2019년 워킹그룹 운영성과, 2020년 워킹그룹 운영방향 및 분과별 논의과제 공유의 순으로 진행했다.

전북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선정

최우수·완주·고창군
우수·군산시·순창군

완주군과 고창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2020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도 정무부지사실에서 시상식을 갖고,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에 기관표창을 수여했다. 우수 기관에는 군산시와 순창군이 선정됐다. 선정된 시군에는 표창과 함께 최우수 1억원, 우수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일자리사업비로 사용된다.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는 도내 시·군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

공을 통해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일자리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평가는 인구수·제조업체수·고용환경 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해 이뤄졌으며, 고용률, 취업지일실적, 일자리창출 노력도,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등 5개 분야 21개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완주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 육성 등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과 완주로 킬푸드 성공모델을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상품 등을 전분으로 확대하는 ‘소셜굿즈 2025플랜’ 정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창업지원의 우수성, 식초 도시육성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일

자리생태계 구축 등 차별화된 일자리 사업 추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군산시는 지역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순창군은 순창형 청년 플랫폼 구축 사업, 2080 청년농업인 영농창업지원 사업 등 독창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시·군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전라북도 전체의 일자리창출능력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도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군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유성엽, 총선 정읍 주요 공약 발표

정읍·고창 예비후보인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 국회의원, 민생당 공동대표)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11대 총선 정읍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10대 주요 공약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노인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지역업자에 대한 코로나 감세(부가세 감면)를 제시하며, 4선 중진 국회의원이 되어 정부의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감염병 등에 대한 첨단 신약개발 산업단지 조성(신정동 첨단과학연구단지 활용 및 전북대 약대 캠퍼스와 협업) ▲농생명·바이오·스타트업 혁신도시 조성(농생명산업진흥원 구축 및 의료용 대마연구개발 스타트업 지원) 공약을 제시하며, 정읍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생활 공약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조기 완공 및 동학기념타워 건립 ▲내장산 관광 활성화(자생식물원 조성) 및 구절초 축제 전국화 ▲생활 밀접형 체육시설 확충 및 도시재생 활성화 ▲‘천원 택시’ 확대 운영 및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농어촌 버스 무료 버스 운행 ▲서해안·호남 고속도로 확장 등을 제시하며, 정읍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이강래,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 다짐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안하는 사회적 경제 정책안에 동의하며 매니페스토 실천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선거사무실에서 송병주(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과 육이수(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경제연대회의 측은 제도부족, 일자리 균형발전, 공공혁신 등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나눠 정책을 설명하고 제정이 시급한 10가지의 공약 채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사회적 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이론과 사회적 가치를 떠나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며,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김희수 도의원 “도교육청 선거교육 강화해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더불어민주당, 전주 6) 의원은 지난 20일 전북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학생 유권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해 도교육청의 선거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약 53

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재학생 유권자는 약 9만 2천여 명으로 전북의 경우 학생 유권자는 약 6천 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인 중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많지만 “선거권자의 연령이 18세로 조정된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 감염병 발생으로 개학이 세 번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선관위, 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 혐의자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A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와 B씨는 지난 2월경 ARS 투표로 실시된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C씨의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투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에 당내경선과 관련, 위계·사술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